광주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들어선다

산업부 공모 선정…국비 140억 확보
2024년 까지 3년간 280억원 투입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건립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들어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감도.

광주시가 광주역 인근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창업·기술개발·시제품제작·네트워킹 공간구축 등을 지원하는 통합 거점의 역할을 한다.

2019년부터 전국 6개 지역에 혁신타운이 조성됐으며 광주는 광주역 인근 북구 증흥동 일대에 건립된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앞으로 3년간 총 280억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광주 혁신타운은 지상 4층, 연면적 9천㎡ 규모이며 전시관, 상설판매장, 공동물류창고, 기업 입주공간, 기업 지원공간, 강의실, 강당 등이 들어선다.

광주 혁신타운이 준공되면 30여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고 광주시내 1340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직·간접 지원을 받게 돼 30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50여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혁신타운조성 관련 산업부 사전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성공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은 물론 지역 핵심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한 점 등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술 및 각종 인프라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분야 진입 ▲공동체 융합형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전문성 강화 ▲상품 차별화를 통한 공동 판로 개척 및 매출 확대 등을 목표로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광주만의 특성을 담은 ▲그린뉴딜형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확산 ▲도시재생 융합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 ▲문화콘텐츠 기반 사회적경제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조성 등도 수행한다.

박정환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는 오랜 공동체 경험과 사회적경제 친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기능의 집적체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224개, 협동조합 1039개, 마을기업 66개, 자활기업 39개 등 모두 1368개에 이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공지능 창업 경진대회 참가하세요

에너지·헬스케어 등 4개 분야
5월6일까지…최대 1억원 지원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5월 6일까지 'K-디지털챌린지 : 2022 AI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기타 등 4개 분야 AI 기술 기반 창업 및 사업화 계획에 대한 기술성·시장성 등을 평가해 최종 10개 팀을 선정하고, 창업을 위한 AI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비를 2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대회는 5월 초 예선 서류심사로 30개 팀을 선정하며, 6월 초 본선 발표심사를 통해 20개 팀, 6월 말 결선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팀을 선정한다. 또 참가자 대상 인공지능 창업교육 및 멘토링·컨설팅을 진행해 예비창업자의 창업 역량 강화를 돕는다.

최종 선정된 10개 팀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AI제품·서비스 품질 확보와 규제해소 컨설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캠프 입주 우대 등의 혜택도 받는다.

참가자 모집과 관련된 내용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업지원팀(062-610-3943)으로 하면 된다.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정책과장은 "지난 경진대회 대상 수상자 '파크웨이브'는 광주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증 및 고도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추진했으며, 최우수 수상자 '세컨찬스'는 초기 기술형 스타트업으로 2억원의 투자를 받는 등 성과를 이뤘다"며 "올해도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 예비창업자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광주천 환경 정화 광주도시공사 임직원들은 최근 광주천 일대에서 하천유입 쓰레기 제거 등 환경 정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도심 생활권 수목병해충 무료 진단 서비스

광주시 학교숲 등 공공영역 대상

광주시는 "도심 생활권 나무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한 '공공분야 생활권 수목병해충 무료 진단'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활권 수목병해충 진단은 신청자가 수목의 이상징후에 대해 진단 신청을 하면 수목진료 전문가(나무의사)를 현장에 보내 병해충 감염 등 수목의 피해 여부를 무료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수목진단 서비스 대상은 학교숲,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 공원, 도시숲 등 공공영역 수목으로, 개인소유 수목 및 공동주택 등 사적영역은 제외된다.

지난해 광주시는 '생활권 수목병해충 무료 진단 서비스'를 실시해 총 93건의 진단 처방전을 발급했다. 수목진단 신청은 10월 31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환경-수목진단의뢰신청)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613-7872)로 하면 된다.

정주형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권 주변 수목 병해충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도심 나무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신속한 병해충 진단과 처방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녹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제안 하세요

광주시 공모전…5월15일까지

광주시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광주다운 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앵커시설 운영·조성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지원을 위해 '2022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재생 앵커시설 운영계획 및 공간설계 아이디어 공모'라는 주제로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 받는다. 광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범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하되,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17개 지역, 54개 앵커시설)이 추진되는 지역 중 앵커시설 운영계획과 공간설계를 지원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 공모결과가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앵커시설 운영계획 ▲앵커시설 공간설계 등 2개다. '앵커시설 운영계획'은 시설 조성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계획을, '앵커시설 공간설계' 분야는 부지매입 또는 시설 리모델링 과정에 필요한 공간설계 마스터플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구체화 컨설팅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어 2차 발표심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아이디어에 대한 현장 컨설팅으로 이뤄지면,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실용성을 높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광주시 등은 제출된 공모작품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총 10작을 선정하고,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대상작은 광주시장상과 함께 상금 150만원을 지급하다. 공모 신청 방법은 2022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민안전 재난대응 역량강화교육 20일 개강

시민안전교육센터 매월 2일씩

광주시 시민안전교육센터는 "20일부터 2일간 광주대학교에서 시민대상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스로 생명을 구하고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재난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안전의식 중심으로 진행된다.

일반시민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2일씩 총 8회 운영될 예정이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특성과 사례 등 시민안전의 이해 및 교통안전, 자살예방, 응급처치 등 시민밀착형 사고유형 예방교육,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재난상황 체험 과정 등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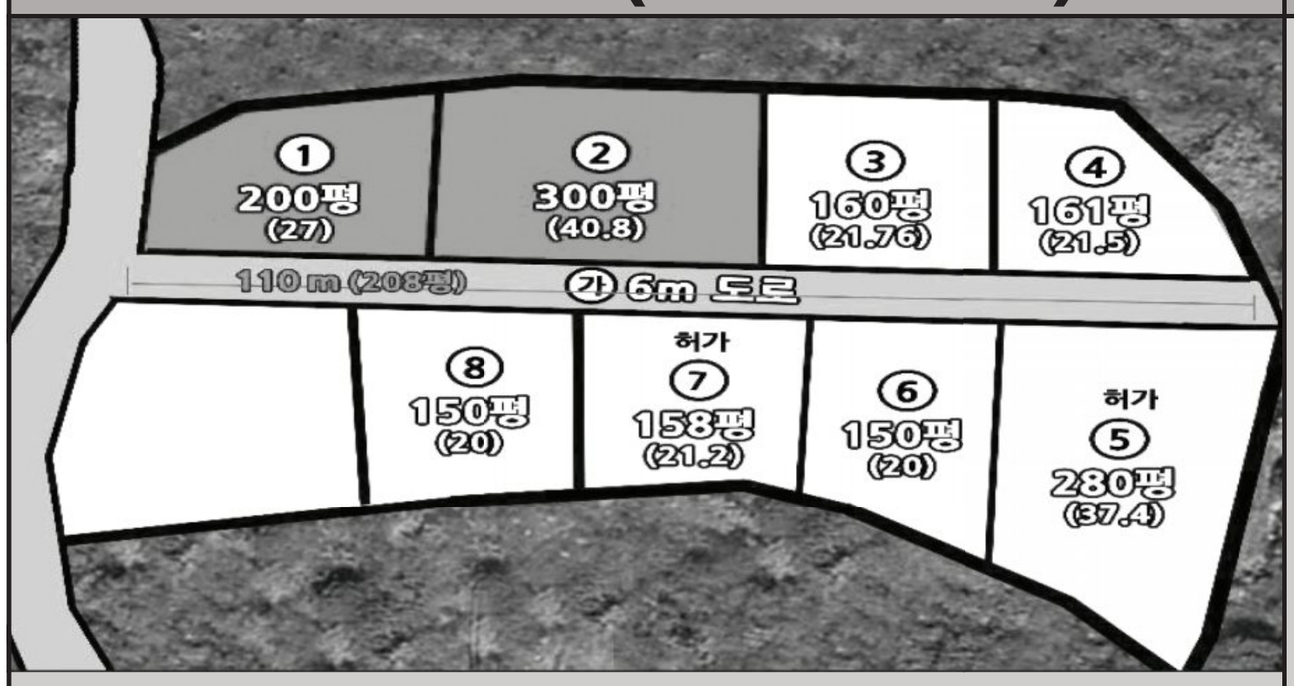
교육 참여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시민안전교육센터(070-4277-2059) 홈페이지와 전자우편(anchon1004kids@hanmail.net)으로 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시민안전교육 전문가 양성교육과정도 상·하반기(6월, 11월)로 나눠 2회 개강한다. 전문가 교육과정은 광주시 손상 현황과 행정안전부 6대 안전분야 및 교수설계기법 등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은 시민안전교육센터의 교육강사로 선발·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 시민안전교육센터는 지난해 6월 광주대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방재안전학과 송창영 교수(한국재난안전기술원 회장)를 주축으로 광주시의 손상감시체계 운영·관리, 시민재난안전교육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잦은 인재를 막기 위해선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스스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문성 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민안전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북구 신안동(다세대빌라)▶감정가 3억9천 -> 1억7천 (3/23)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2억5천 (4/14)
	광산구 덕림동(임야)▶ 감정가 21억 -> 15억 (4/15)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4천 (4/15)
	동구 지산동(임야)▶감정가 19억 -> 13억 (4/22)
	광산구 하남동(주택)▶감정가 7억8천 -> 5억5천 (4/22)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감정가 95억 -> 42억 (4/26)
전남	화순군 도곡면(임야)▶ 감정가 7천 -> 7천(3/3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4/6)
	나주시 빛가람동(주차장)▶ 감정가 17억 -> 12억 (4/11)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38억 (4/11)
시외	경기도 수원시(근린주택)▶감정가 15억 -> 7억4천 (3/31)
	경북 경주시(다가구원룸)▶감정가 15억 -> 5억4천(4/5)

010-6670-9800